

# 예수는 유월절 희생양

조 덕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 29-36, 흥정역

29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30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31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33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35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의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36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하니

## 1. 하나님의 어린양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했던 증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일컬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했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제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침례자 요한의 말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까? 요한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침례자 요한의 제자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선생님인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이를 나중에 복음서에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이해하는데 다음 몇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왜 세상의 죄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가?

둘째,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는가?

셋째,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할 수 있는가?

첫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여 쓴 다음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23 **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려면 죄를 제거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몸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지만, 몸과 영혼에 젖어 있는 죄의 흔적을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철학자나 위인일지라도 인간이 스스로의 고행이나 선행이나 학습이나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끗이 정화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해도 그것은 다만 허언일 따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자로 의 [義]를 자세히 보십시오. 자신[我]을 양[羊]의 밑에 두는 형상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4 천여년 전에 창세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중국 땅에 왔던 노아의 후손들이 '의로울 의'의 개념을 표현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어린 양의 밑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양 예수의 밑에 들어가 그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야 의가 이루어 지는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가지신 기본적 입장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시작점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8-20]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인정하던 하지 않던간에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엄연히 드러나 있고 우리는 주어진 지성과 이해력으로 이러한 피조물에 표현된 창조주의 위엄과 권능을 알 수 있으므로 우리는 감히 변명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태도를 불의한 것으로 보시며 그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세상 전체에 대하여, 불신자가 대부분인 불신 국가에 대하여, 도덕적 타락이 극심한 타락 국가들과 가정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불의와 사악함에 참여하는 개인들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의 복음은 온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과 가정과 개인들에게 동일한 멧시지로 나아갑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굴복하고 나아와야 합니다.

## 2. 왜 희생양이 필요한가?

이슬람 종교는 한 개인이 자기네 하나님인 알라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훌륭한 대언자로만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 때부터 신약시대까지 일관되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동물의 희생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동물을 희생시키셔서 가죽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3:21]. 동물 희생의 기본 의미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한 동물이 생명의 상징인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의 죄가 씻어진다는 대속[代贖: Redemption]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어 보내지 않으시고 양을 바쳐 희생물로 드리는 올바른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양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법을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벨은 부모에게 배운대로 하나님께 난지 일년된 첫 새끼 양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아벨을 ‘의로운 아벨’이라고 여기셨습니다 [마태 23:35]. 아벨이 올바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즉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 제사법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나중에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가르쳐 줌으로써 성막 예배와 이어서 성전 예배의 근간을 이루는 제사 전통으로 자리 매김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내기 바로 전 날에 그들로 하여금 각 가정이 어린 양 한마리씩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양을 구워 가족이 모두 먹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집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그런 집들은 지나가고 그렇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위 ‘유월절 (躡越節: Passover)’ 전통이 수립되어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매년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3-8]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십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4 그 어린양에 대하여 집안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5 너희의 어린양은 흠이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6 같은 달 십사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7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의 문기둥에 뿌리고, 8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물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이 사실을 2 천년 전에 선언하였는데,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으로 못박혀 죽으면서 고귀한 피를 흘리기 3 년반 전에 그 선언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소명이 무엇인가 생각하도록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바로 유월절 전날 오후, 즉 어린양을 죽이는 그 시점에 갈보리에서 어린양 되신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신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월절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즉,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즉, 유월절은 유대인에게는 탈 이집트의 의미가 있지만, 비유대인들에게는 탈 죽음, 탈 암흑, 탈 저주, 탈 진노, 탈 죄로 가득한 인생, 그 모두를 의미하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어린양되신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함으로써 이러한 위대한 혜택과 축복에 들어갈 기회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 특권은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정부나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보상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 3. 왜 예수님이 희생양인가?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할 대속물로 어린 양이 필요한 유대인의 전통은 알겠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양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겠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두가지에 있습니다.

첫째, 온 인류의 모든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모두 대속하려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드님의 희생만 그러한 큰 대속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에는 작은 대속 요건이면 되지만, 회개하는 모든 인간들이 인생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려면 아무리 많은 양들과 소들을 죽여도 그 대속의 댓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물 제사를 가르치시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성전 예배를 수립하신 것은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배려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22-24]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23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되리라, 하였으나 24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꺾히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불행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1948 년에 무려 1900 년이 넘는 유랑 생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옛 이름으로 국가를 수립하도록 미국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배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는 수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대 변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이처럼 커다란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는 하늘의 큰 인물이 희생물이 되어야 했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수행하시기로 자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 즉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 세분의 협의 가운데 벌어진 참으로 위대한 하늘의 대 결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자 하나님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어 그 대속 희생물, 즉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고자 헌신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6-11]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10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11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그 분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어 자신을 종의 형체로 낮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만드셨으며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한 분의 가장 고귀한 희생과, 자발적 겸손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소명을 마치고 하늘 왕국에 승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이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혀 가진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가장 크신 주님이라'고 시인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쓴 계시록에는 바로 그러한 현재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 **4. 우리의 구원과 어린양 예수**

이렇게 하나님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런 자리를 떠나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써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죄인들은 죄의 대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어느 누구든지 그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가 아무리 크고 흉악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훨씬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도 모두 속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한 이유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 개인이 자신을 돌이켜 보고 주 예수님을 자신의 주, 자신의 왕,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